

제1회 전국목회자세미나 내일 개강

복음과 리더십의 진정한 회복을 소망하며
모든 강사들과 진행자들이 성령의 도우기에 기도해야
수요1부예배는 본당에서 함께

'99 교육훈련원: 성경·선교연구원·전도훈련원

28일 천안에서 개강예배
힘써 배우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대
3월 첫주부터 시작·교육국에서 등록 접수

하나님께서 총현교회에 허락하신 '성경의 기쁨'을 따라서 지난 수개월간 힘써 준비해온 제1회 전국목회자세미나가 드디어 내일 시작된다. 한국 교회를 복음으로 섬겨 '복음 한국'을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자 마련된 이 세미나는 이번 제1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향후 매년 2회에 걸쳐 진행될 대단히 중요한 행사이다. 이에 따라 총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순진히 회복될 뿐 아니라,

시간	2월 22일(월)	2월 23일(화)	2월 24일(수)
08:00 ~ 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 ~ 10:20	Dr. Enns (4)	Dr. Longman (4)	09:00 ~ 10:40
10:20 ~ 10:30	휴식시간	휴식시간	10:40 ~ 10:50
10:30 ~ 11:50	Dr. Enns (5)	Dr. Longman (5)	수요 1부예배(11:00~12:00)
11:50 ~ 12:50	사진촬영, 점심식사	점심식사	
12:50 ~ 14:00	개회예배 김성관 목사 본문: 빌 3:1-3 제목: 목회자의 자질	Dr. Enns (6)	Dr. Longman (6)
14:00 ~ 15:20	Dr. Enns (1)	Dr. Longman (1)	폐회예배 김성관 목사 본문: 마가복음 4:3 제목: '무 뿌리'의 자질
15:20 ~ 15:30	휴식시간	휴식시간	
15:30 ~ 16:50	Dr. Enns (2)	Dr. Longman (2)	
16:50 ~ 17:00	휴식시간	휴식시간	
17:00 ~ 18:20	Dr. Enns (3)	Dr. Longman (3)	
18:20 ~ 19:2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20 ~ 20:20	김성관 목사(리더십)	노광현 목사 (현대 교회의 목회자의 소명)	
20:20 ~ 20:30	휴식시간	휴식시간	
20:30 ~ 21:30	윤영탁 목사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위하여)	박형용 목사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소명)	

선교위원회
선교사후보생 모집

이석현 선교전도사·강기명 평신도선도사 일명

선교위원회는 점차 확대되어가는 선교 사역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교사 후보생 3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선발기준은 총신대 신대원에 재학중인 자 중 선교소망이 분명한 자로서, 지원 마감일은 3월 24일이다. 후보생 지원자들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선교사진원 동의서, 추천서 3통(담임목사, 교수, 선교사), 대학 이상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그리고 호적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이며 그밖에 검증 가능한 영어실력으로 지원자격에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문의로는 선교위원회(구내전화와

99년도 전반기 교육훈련원 산하 각 연구원 및 훈련원 과정이 28일 개강예배를 기점으로 일제히 시작된다. 성경연구원(2월 14일자 주간총현 참조)과 선교연구원은 각 16주 과정으로, 전도훈련원은 8주 과정으로 각각 진행되는 이 교육프로그램들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

전도훈련원은 올 한해 동안 총 3차례 걸쳐서 각 8주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훈련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인 것이 장소는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이다. 등록료인 중 지원자 신약소 40명을 대상으로 훈련과정 될 전도훈련과정은 김재철 목사를 주강사로 하여 전도의 의의와 내용, 결실의 의미와 내용,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실습, 전도의 실제문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선교연구원 강사 및 시간

(1) 제9기 1학기비전과정(17:00-19:30)

오리엔테이션/선교연구원
제1과 이브라함의 계보/이승수 목사
제2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보/이승학 목사
제3과 모든 족속을 위한 한 메시지/정갑신 목사
제4과 한국교회사 속의 선교/김희수 목사
제5과 세계교회 운동의 역사적 개관/김필수 목사
제6과 삼시대 신학의 발달/김필수 목사
제7과 최후의 개척자/정갑신 목사
제8과 문화와 복음주의/차병준 목사
제9과 복음을 위해 준비된 세상/이승학 목사
일막수련회/선교연구원
제10과 과업을 완수하라/김동환 목사
제11과 개척자적 교회 개척/이승수 목사
제12과 선교와 교회 파송기관/김동환 목사
제13과 지역교회의 선교활동/차병준 목사

성경적 신신학/이승학 목사

선교역사/박경현 목사
21세기 선교전략/김영환 목사
장단기 선교의 특성/정갑신 목사
한국교회 선교의 동향과 전망
효과적인 단기선교/선교동원회
외국인근로자 사역/이승수 목사
비교종교학/차병준 목사
일막수련회/김희수 목사
경보전산관/김희수 목사, 천자우원, 인터넷)
전산실
선교 전담사/이승수 목사
선교행정과 정책/이승수 목사

* 언어과정(19:30-21:30)
(8, 9기 공통)
영어 / 김희수 전도사
한국어 / 김성자
몽골어 / 수현
중국어 / 강려화 집사
스리랑카어 / 가미니
방글라데시어 / 소부즈

계속되는 겨울행사들

영아·유아·유지·중등·3부
고등부·청년부·예배대부
전학생후보자 수련회

각 교회교회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22일 부터 24일까지 중등2, 3부가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가지며, 25-26일에는 영아, 유아, 유치부까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실시한다. 그리고 24-26일에는 고등부가, 26-27일에는 청년2부와 도사장학회가 각각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또한 예배대부 역시 26-27일 양일간 교회에서 수련회를 연다. 이 수련회들을 통해서 각 부서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온몸을 합일하도록 성도들의 관심있는 기도가 요청된다.

소석장학회

지난 주에 마감된 총현소석장학회 신청마감 결과, 대학원생 24명, 대학생 144명, 고등학교생 74명, 그리고 중학생 46명 등 총 288명이 장학금을 신청하였습다. 이들 중 교회의 천국일꾼 양성에 가장 적합한 인재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 장학회 후보자들 중 대학·청년부에 해당되는 지체들은 26-27일 양일간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가지며, 중·고등부는 28일 주일 오후 4시에 교육관 307호에서, 예배대는 별도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창인 목사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

(이사야 38:9-22)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나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각근히 행하리이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생명의 연장을 받았다는 약속이 이루어져 그 병이 나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록한 글을 공부하겠습니다.

1.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받고 기록한 글이 어떠합니까

(1) 회복 불가능에 대해 절망했던 상태를 고백하였습니다

① 여권을 빼앗기는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권(餘年)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리라 생전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였도다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10-11절).

사람이 병들면 마음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더욱이 의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으므로 그야말로 죽은 몸속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생을 음부에 매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히스기야 왕은 39세의 나이로 한창 당당하던 때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니 그가 막혔다. 막강하던 악수르 군대도 물러갔고 기력은 충천하니 남은 생이 즐겁고 태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기도에 찻던 남은 생이 음부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살아 생전에 다시는 여호와를 뵈울 수 없고 죽은 저편에서나 뵈울 수 있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② 생명이 경각에 이른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견음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맡기며 직공이 배를 건너 말뚝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끌어 들으시니 나의 명이 조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건디었사나도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니 나의 명이 조식간에 마치리이다”(12-13절). “조식간에” 아침과 저녁 사이를 말하니 곧 죽음에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목자의 장막을 견음같이” 목자가 임시로 천막 장막을 건어 치운다는 것은 더 이상 목장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거나 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공이 배를 맡을줄” 배를 위의 날살은 배짜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짧아

져 마침내 배가 완성되면 직공은 실을 잘라 버리고 배를 건어 돌을 탑니다. 그러면 배짜기가 끝이 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위한 그의 계획과 이스라엘을 위한 경역이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③ 슬피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애통하나니”(14절).

제비나 학의 울음소리는 매우 날카롭고,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처량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이 처절하고도 슬프게 신음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되 ‘눈이 쇠하도록’ 울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울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나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14절)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신경질을 부리면서 믿음에서 타락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압제를 받나오니”라는 말은 무자비한 채권자가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채권자처럼 와서 생명을 내어 놓으라고 독촉이 성화 같으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① 각근히 행할 것을 결심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나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각근히 행하리이다”(15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5년을 더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바로 살기로 굳게 결심할 따름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결심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입니까? “이만해 하나님이나 나의 병을 고쳐 주셨으니 바로 살겠습니다” 해 놓고 한 달쯤 지나서 만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슬피 울며 지저귀며 ‘종신토록’ 바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각근히”라는 말은 죽음을 떠나서 깨끗하게 살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충성하고, 죄악없이 정결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바로도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려 달라고 기도하여 살려 주셨으니

슬피 끊어질 때까지 각근히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기뻐하시니 만났습니다.

②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한 줄 깨달으며 감사하였습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이 온전히 거기 있나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16-17절).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곧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그의 인자하신 행동에 있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살 것은 의사를 통해서도 아니었고 저절로 나온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집 오너를 더 연장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결코 모르는 것은 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알 수 있리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살아난 후에 그 고통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은 징벌이었지만 사람의 징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깁니다. 히스기야 왕은 고통 후 이에 비교할 수 없는 큰 평안을 체험하였습니다.

③ 죄를 씻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17절).

사람이 죄짓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그의 긍휼로부터 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육신의 병이 고침받을 것을 통하여 그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의 육신과 고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고침을 통해서 한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돌보고 믿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더 원하신 것입니다.

(3) 종신토록 찬양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은유가 주께 사해하지 못하며 사람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여 주성령에 물려진 자가 주를 신실로 바라지 못하오신 자 곧 살리신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영화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주권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께의 전에서 수급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19-20절).

하나님이 최인을 멸망에서 건지시는

이유는 죽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도 찬송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 그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게 함으로써 영향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

히스기야 왕은 그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종신토록’ 수급으로 노래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기 전에도 레위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는데(대하 29:30),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는 너무 감사하여 신하들에게 명하여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케 하였습니까(잠 25:1).

2.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무슨 처방을 하였습니까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동지 무와를 취하여 종에게 붙이던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요 하였으리다”(21-22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한 후 동지 무와를 취해 종(사)에게 바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약치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을 때 의사나 약사의 진료만을 것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합니다. 약을 쓰는 것이 최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약을 쓰는 것이 최라는 사람은 단정합니다. 약은 절대로 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약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약사에서 만든 약이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일부만 고치는 것을 약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약은 최가 아니고 또한 약이 병의 전부를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을 어떻게 취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심을 간구하면서 약을 쓰면 우리는 마음의 죄를 용서받으면서 육신도 건강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약은 쓰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써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는 회개하며 기도 하나님께의 권능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을 알고 의식에 게 부려야 약을 먹되 하나님께 감을 입혀 달라고 기도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



김성록 목사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24-30)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율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한 이방 여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이방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혈통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여인이 가질 만한 특권과 축복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녀는 헬라 이방인으로서 소외된 자입니다. 인간의 가장 끝자리에 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학대받고 있는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귀신들렸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주거나 위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의미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문제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가족들을 섬기면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이런 난관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신앙적 요소도 공유할 수 없음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유대민족으로부터 적대적인 대접까지 받아야 하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장애요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더러운 영에 의해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해 주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구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의 간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 곧 이방인의 땅에 오신 이유는 잠시 휴를 얻으시기 위함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무 유방해져서 쉬실 수 없으셨기에 이렇게 홀로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땅에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마 15:22). 그녀는 예수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정직하고 겸손했습니다. 깨끗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간청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녀를 제지했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조차도 그녀의 문제를 지나치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고 그 여자가

이다”(막 7:28)

수치를 넘어서는 믿음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개같이 취급받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개와 같은 처지임을 실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개와 같이 비천한 위치에 서서 간구합니다. 제발 부스러기라도 얻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여인의 간구에는 주님을 향한 경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나

값더리”(막 7:30).

이제 그녀의 가정은 사탄의 해방과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유, 부드러운 기쁨과 고귀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딸 그대로 달콤하고 평화스런 가정, 홈 스위트 홈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의 어떤 곳도 그녀의 집과 같은 곳은 없다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하고 신실한 어머니는 그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서 결국 해결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세상은 어머니들의 위대한 기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믿음, 심지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친애하는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에도 확신이나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부끄럽기는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유일한 해답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위한 유일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들의 깨끗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을 쏟는 기도, 정직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사실을 만호하 여리고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탄에게 방치하여 죽음과 멸망을 초래하게 할 뿐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어머니들의 본능적인 방어가 너무 강할지라도 그것이 사탄의 날카로운 공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은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만이 진정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보살핌이 예수님의 보살핌보다 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터전인 이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충헌의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양육하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위한 유일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들의 깨끗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을 쏟는 기도, 정직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어머니들의 본능적인 방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이 사탄의 날카로운 공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은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마 15:23).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자의 간청은 너무나 간절해서 제자들조차 곤혹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간절한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어 예수님을 좋았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구까지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역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경청한 말씀 앞에서 그녀는 심하게 상한 자존심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랫동안 더욱 격려를 받았습니다! “주여 율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

자존심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광대하심을 알기에 자기의 딸을 위한 아주 적은 자비라도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자존심 싸움 따위에 의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결국, 이 이방 여인, 곧 딸의 어머니는 주님으로부터 온종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자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년대로 되리라”(마 15:28).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은 이스라엘의 어떤 여인보다 낫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떤 위대한 신앙입니다.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영향력보다 뛰어나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싶어 돌아가 그 성취를 확증받았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

선교 / 전도

선교

인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인 수(집사, 인도안기전교팀, 국내외국인선교부 교사)



△ 인도 젊은이들에게 전도하는 대인.

인정이 정제되고 우리 팀원들은 주 3회 모여 기도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준비하였다. 언어를 비롯하여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을 절감하며 우리는 인도행 비행을 기뻐하였다. 델리에서 밤을 지내고 곧바로 사역지인 안기전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향하였다. 찬디갈은 원장지방의 수도로 첫날 우리는 각 대학을 정찰하였다. 이튿날 우리 팀들은 2.3명의 담임을 이휘 학생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말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일깨우고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여학생들은 비교적 잘 듣고 호의적이었으나 일부의 학생들은 친구를 의식하여 정제하고 논쟁에 말려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할 때가 있었다. 의기소침한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주시고 또 다른 믿음을 보내 주셨다. 그들의 친구들까지 모여들어서 많은 학

생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의 연락처도 적어 주었다. 계속하여 서신을 보내고 교제하여 저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도 아쉬운 것은 한 여학생과 생활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일로 늦게 갔더니 그 자리에 없었다. 그 학생이 복음에 관해 듣기 원했는데 전하지 못하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린다.

마지막날에는 전도한 학생들을 음식점으로 초청하여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복음도 듣고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움을 나누었다. 많은 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복음에 관해 이야기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든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인도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여질 것까지 기도하며 계속하여 서신을 통해 교제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리랑가 단기선교사역을 통하여 국내외국인선교부(이하 외선부)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어, 2월 14일-16일에 있는 외선부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수련회 첫날인 주일날 모두 모여 주일 찬양예배에 특송 찬송을 하였는데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들어' 찬양을 부르는 외국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진지하여 코끝이 찡해왔다. 언어는 다르지만 주님을 영접하려는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니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아 귀하게 느껴졌다.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있었던 수실로는 한국보다 더욱 유창해졌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수련회가 시작되어 기도원에서 찬양을 드리는 데 중국집 자매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붙었다. 남편과 아이는 중국에 있고, 자기는 혼자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하였다. 그 자매의 맑은 웃음 속에서 그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다. 내가 성경공부를 맡은 두 자매들은 유능한 자매였다. 처음에는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으나 죄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난 뒤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는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었다.

물레 날에는 뜻밖에도 위임목사님께서 기도원으로 찾아오셨다. 예기치 않은 방문에 너무나 반가웠고, 외선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했다.

전국교회시간, 엄격하게 진행하는 선생님 앞에서 그들은 대부분이기가 보보다 많음에도 순진한 아이들 같은 모습이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라고 선포하며 군사답지 못한 태도를 지적했을 때 줄거늘 모습으로 벌을 달게 받는 태도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토끼귀와 PT제조를 재미있게 하는 그들을 보니 너무 사랑스러워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어떤 교사는 학생과 두 배 에기를 그렇게 하시는지 늘 진지한 태도로 대하고 있었다. 한 열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 주기 위해 입을 열어 열심히 가르치시

국내외국인선교부 수련회 마지막

너무나 사랑스런 그들

오경희(청년1부 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들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밤 12시가 지나 모든 행사가 끝나 모두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뒤늦게 중국집 자매 2명이 오더니, 방식을 마추려고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교사인 우리들도 이렇게 파곤한데, 자들은 피곤을 몰라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는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여 무를 끊는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 그 외에도 가끔씩 쫓겨간 딸들을 부르며 장난을 치는 형제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었다.

외선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본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해서가 아니라 미성년 가운데서 살아야 가야 하는 것 때문이다. 기후, 음식, 습관이 다른 한국말, 언어도 문화도 낯선 땅에서 잘 견디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며, 또 다른 선교사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그럴까? 이방인(파라과이) 가운데 살면서 농물을 출하해 나로서는 그들이 이 곳 낯선 한국 땅에서 살아야 하는 고충을 더욱 공감하게 된다. 이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해 주고 울 때 같이 울어 줄 사랑이 필요하다. 열매 두고 다 사람을 만들고자 함이 아닌, 진정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심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바치는 것은 또 다른 선교사를 만드는 일이라 확신하다. 한국에서 4.5년전 살아가는 이 세대의 한국인이 다 되었는데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리하듯이 그들은 늘 고국을 그리워한다.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는 선교사로 파송받을 것을 소망하며 기도원을 내려왔다.

전도

가곡교회에서 온 감사편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이 준식(목사, 원주 가곡교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에 세워진 가곡교회는 올해로 설립 30년을 맞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농현상이 가속되면서 교세가 급격히 약화되어 현재는 동종세대 117가구에 매주 주일 출석 12명 안팎, 유초등부 어린이 4명 안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약한 교회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 유지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성도들은 늘 눈앞의 한 도와 먹을 것을 아끼고 열심히 1996년 8월부터 일년간 예배당을 건축하여 1997년 8월에 감격이런 입당예배를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해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총회 교단 4교구 농어촌 전도대와 연결이 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4교구에서 파송된 의료팀과 전도대원들은 이곳에 2차에 걸쳐 방문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

봉사와 축조전도를 통해 10개 마을 180여 세대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열심 가운데 고집스럽기로 소문난 82세의 노인들 교회로 인도해 주었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몸매 입파선 종양이 난 청년을 부둥켜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되자 첫날 저녁에만 새신자 13명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27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큰 부흥을 이룬 어린이대상의 전도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고집스럽기로 유명한
82세의 노인도,
은 몸매 입파선 종양을 앓는 청년도
사랑의 복음 앞에서 함께 눈물

한 가지 바라다 것이 있다면, 이러한 전도대 파송을 알로라도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부두온 여름과 금년 추운 겨울은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을 물리치고 이곳에서 헌신해 주신 4교구 전도대원 성도님들과 총회교단 담임목사님, 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은총선언문을 다려와서

자유

세상에 굴하지 않으려 결어온 길
순간의 삶이 양심에 떨다가
가치 잃어버려 할 것
어린 백발의 하얀 광장
그 빛을 벗으려는 인간형
속삭임의 꿈과 희망의 날개
연명함
지연의 뒤편 그 자신을 묻고
생애는 여러 꿈무늬
시대가 살고 간 모래성 위에
그 옛날 굴복의 반향
가만 웃음 안에 그제 있는 침묵

검과 불꽃 무게의 적음
어두운 광장에 가득 찬 감동
그 빛을 벗으려는 인간형
속삭임의 꿈과 희망의 날개
연명함
지연의 뒤편 그 자신을 묻고
생애는 여러 꿈무늬
시대가 살고 간 모래성 위에
그 옛날 굴복의 반향
가만 웃음 안에 그제 있는 침묵

지금
평화의 비둘기되어라
자유, 자유 주시려고
문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
(교정전도회)

아이들의 마음에 가장 쉽게 새겨지는 만화 漫畫 만화 漫畫

- 그 어둠과 밝음 사이에서 -



글과 그림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만화는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이해가 쉽고 상상 속의 세계를 마음껏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화는 아무나 아무곳에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볍고 손쉬운 대중매체라는 점에서 매우 급속하게 퍼져간다.

이런 만화에는 어둠이 있다. 공식적인 매체 안에 담아내는 음담배설과 잔인한 폭력,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기괴한 농담과 천한 웃음 등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만화에는 밝음도 있다. 한두 컷의 삽화에 담긴 깊고 감동적인 사랑의 메시지,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들을 단번에 잡아 묶는 우수한 형상화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온통 잡아끌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만화들은 어떤 것들일까? 집에서 못다 읽은 교외까지 가지고 나와서, 설교시간을 만화독서로 보내는 아이들의 손에 들린 만화는 어떤 것들일까? 그 대부분은 코믹과 폭력으로 대변되며, 때로는 성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만화는 아이들의 마음에 사치처럼 박힌다. 따라서 설교를 듣는 순교자도 아이들은 '광구는 못말려'나 '호랑별', '소련 땅의 '검객'을 생각한다. 혹은 '땅'에서 등장하는 온갖 폭력적인 장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 상상 속에서 폭력을 휘둘러보기도 한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의 손에 들려진 만화 중 참으로 건전하여 추천할 만한 만화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 대부분은 이 땅의 진실을 해풍 웃음과 과대과장된 허풍으로 가린 것이거나, 폭력을 미화하거나 전양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만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만화를 선교매체로 적극 활용하려는 신실한 교사나 신도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하는 손은 돈을 향해 달려가는 상업주의 만화가들의 경쟁적인 실태에 가려져 있다. 이에 만화와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 아이들을 복음의 밝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모들이 대처해야 할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본다.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저질만화, 그 문제점

요즘 청소년들 중 다수는 책을 선택할 때, 시공을 초월하여 무수한 감동을 안겨 주던 고전을 선택하기보다는 말쑥한 감정을 자극하는 저질만화들을 쉽게 선택한다. 그들은 인생의 진실을 따듯한 고전 이 안겨 주는 영혼의 울림보다는 순간의 짜릿함을 갈구한다. 이러한 습관의 반복 속에서 저질만화가 청소년들의 우상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청소년 시절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고전, 혹은 만화만 읽어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저질만화에 익숙해진 청소년

“사랑스런 우리 자녀들을

저질문화의 어둠에서 예수사랑의 밝음으로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를 대다수는 감동적인 교원읽기를 기피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애를 써서 읽어야 하는 책 대신에 쉽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만화에 손을 뻗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책읽기를 알지 못하니, 성경에 담긴 그 귀하고 깊은 진리의 맛을 알 리가 만무하다.

저질만화가 가져다 주는 심각한 병에는 그 그림뿐 아니라 내용에도 담겨 있다. 이 만화책 안에는 폭력과 잘못된 사랑이 가득하다. 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잔인한 폭력은 극대화 미화되어 넘치다음으로 둔갑하고, 잘못 표현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환상으로 다가온다. 이

는 아직 더 자라야 할 청소년들의 마음을 왜곡된 생각으로 물들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조잡한 저질만화를 본 후에는 꼭 그대로 행동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강하게 느끼거나 폭력을 행사해 보려고 기회를 엿본다. 이에 따라 이들의 눈에는 가정과 가족, 교회와 믿음의 일상성에 묻혀 있는 소중한 비밀과 아름다운이 들어오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영혼은 환상과 왜곡된 영웅설리로 인해 점차 어두워져간다.

이밖에, 저질만화들에 담긴 문장 수준은 낮긴지려나 정도이다. 특히 일본만화 번역본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논리도 안맞고 맞춤법도 엉터리인 비문들이 즐비하다. 이는 작가도 역자도 출판사도 땅기되어 있지 않은 저질만화들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진정한 '기쁜 소식'의 밝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저질러지는 저질문화의 신속한 파괴 앞에서 희생당하는 우리 아이들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염연희 기자)

대안 모색하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아이들이 만화를 손에서 뱌 줄 모르고 만화 속에서 폭력과 허풍으로 세상 살아가는 법을 온근히 배우고 있는 이 때에, 스승이나 부모도 선배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에까지 들고 와서 예배시간에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키득대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떠들지 않고 말없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것인가? 그 조용한 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왜곡된 것들을 소리없이 배우고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저 '안돼'라고 소리치고, 아이들의 손에서 만화책을 빼앗고, 텔레비전을 끄는 것이 상책일까? 몇 가지 간단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아이들이 즐겨 보는 만화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들이 살펴보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주인공들이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보자. 그리고 아이들이 왜 그것을 그토록 좋아하는지 아이들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둘째, 아이와 함께 만화에 대하여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자. 아이가 만화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 속에서 읽고 있는지를 듣자. 그리고 부모로서, 스승으로서의 의견을 부드럽게(때로는 단호하게) 말해 주자.

셋째, 아이와 함께 만화책을 고르자. 만화책을 읽고 난 후에는 간단한 감상문을 쓰도록 유도하자. 그리고 만화 속의 세상과 현실의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찾을 수 있는 비판적인 눈을 갖도록 하자. 아이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양육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먼저 공부해야 하겠다. 이렇듯부터 교회에서는 교회인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익숙하게 배워가는 우리의 '불행한 아이들'이 생활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만화를 보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능히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이수경 기자)

이들에게도 보냄을 받은 것이다

황 인 원

(청년1부, 예니메이션 전공)

그가 없던 내게 몇 가지 되지 않는 즐거움 중 하나는 더더도 덜도 아닌 그리기였다. 그냥 똑같이 그리는 것만으로도 내겐 즐거움이였다. 돈도 없었기 때문에 영화나 만화는 커녕 차비만으로도 학교 다니기에 벅찼다.

어떤 어른들의 시작처럼 나 역시 '만화보기'를 최로 여겼기에 그리기는 좋아했지만 난 항상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결국, 1997년 대학에 입학하면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무척 어려웠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리기나에 대한 문제는 많은 책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무엇을 말할 것이기에 대체선 한 한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 알려 준 적도 없었기에 난 절망에 빠졌고 야만했다.

현재 나는 어떻게 그리기 것인가에 열중하고 있지만,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다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디즈니는 허황된 이야기를, 많은 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미야자키는 무정부주의를, 또한 에바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안도 히데아키는 파괴적 종말을 통한 희망의 완전한 상실을 그리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이다.

꿈이 없던 내게 이제는 꿈이 생긴 것이다. 이들에게도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림 / '빛과 소금' 95년 10월호중에서)

믿음의 자세

이 형 주(소망부 교사)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어떤 남게 받은 신앙의 교육이 생각난다.

- 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을 법하지 말라 그리고 예배시간 늦지 말라.
 - ② 예배시간 중 귀한 시간은 속도 시간이니 급하다고 속도 시간에 나가지 말라. 예배를 인드리는 난 못하다.
 - ③ 예배당에 일단 들어왔으면 인사 외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말라.
 - ④ 주의 축 목사님에게 약집이 있으면 조용히 위하여 기도하고 티셔츠(비밀) 말라. 하나님께서 아끼고 인도하시리라.
 - ⑤ 교회에 비칠릴 성물을 비쳤든 하나나도 당회장, 그리고 본인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게 되면 청진하고 교만해진다.
 - ⑥ 경건한 예배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예배드리면 안된다.
- 나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는데 처음 읽은 아니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온 것만은 사실이다. 여기에

살을 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예배시간에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바쁘다기보다 습관성으로 늦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고치려고 노력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예배시간에 성령이 들어와 열매 사람과 일주일이 있었던 것을 열매 사람이 짜증날 정도로 크게 이야기하는 성도들, 그리고 눈치껏 하면 소리 안나게 찾는 것을 성경도 찬송도 어찌 그렇게 요란하게 찾는지. 그것도 노력하여 고쳤으면 한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정 급하면 찬양대 마지막 송영할 때 가방 정리 해도 될 것을 꼭 목사님 축도하는데 지체를 올리고 내리는 소리 그것도 소리 안나게 노력하면 될 것이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이 무슨 모세시대나 바울은 분들도 게실지 모르나 이 글을 읽으시고 단 한 가지라도 고쳐서 '신령한 예배'가 세워지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한다.

제2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강습회를 마치고

이 훈(장로, 찬양위원장)

제2회 전국 찬양대지도자강습회를 2월 3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진행하게 하시고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첫날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참석자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신 진지한 수강 모습으로 인하여 추위도 문제가 안되었고, 강습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앞장선 이종남 장로와 위원들과 섬김의 모습을 솔선수범한 찬양감독들 비롯한 여러 강사들의 정성을 다한 지도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봉사과 식사와 잠자리까지 신경을 써서 도와 준 교회와 여러 가족들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섬김의 모습과 사랑의 분을 그대로 보며 줄줄이서 서로가 은혜받고 감사하는 시간의 연속이 되었음을. '기대'나 '크림' '살랑크'는 말을 흔하 하는데 금년에는 그 말이 맞지 않는 참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보람된 결과를 얻은 영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매우 귀중한 강습회였다 참석자들이 한결 같은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충청교회의 또다른 존재 의미를 실감케 한 강습회

해결하는 배움의 기회와 방법이 없어서 늘 안타까워했고 이 문제를 위해 기도했었는데 금년에 충청교회에서 주최한 강습회를 통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음악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실용과 특강을 듣게 되었으며, 금요집회 시간에 찬양과 말씀으로 진행한 김성관 위원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하는 것이 참석자들의 중본이었습니

우리 교회와 같은 대형 교회는 여럿이되어 이와 같은 강습회를 주관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온 지휘자이자 여사님 한 사람이 강습회 끝난 후 찬양위원회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충청교회와 같은 큰 교회 왜 있어야 하는지를 이번엔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감격스러운 말을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경이하게 듣고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에 맡기 주신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앞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불신 가족을 위한 기도모임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며

작은 꼬마를 사이에 두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아름답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소망하며 소원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있다. 5주에배가 끝난 후 팀원 청년부 집회실 한쪽 구석에서 모이는 불신 가족을 위한 기도 모임이다. 작년 5월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이 믿는 가족을 위해 격정하게 되었고 불신 가족을 둔 다른 지체들과 화해의 맛이 "그래,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자" 한 것이 기도 모임의 시작이었다.

처음에 4-5명이 모여 일주일간 묵상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며 불신 가족에서의 어려움을 나누며 기도하였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모임으로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름사역과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모임이 시들해지고 또 워낙 장기적이고 지체복음들이나 지체가 시작됐다. 그러나 늘 기도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며 불신 가족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자매로 인해 이 모임의 중요성과 지체들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자매는 독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며 어머니 뜻대로 살

기로 결심(?)한 지 1년이 못되어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못 살겠다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신 어머니와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날에 이 기도모임을 통해 열매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꾸준히 이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박순산 형제의 비전이다. 또 이 모임에 대해 김정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혼자 기도하면 지치기도 쉽고 생각은 늘 하지만 기도하자는 어려움에 함께 기도할 수 있어 힘이 되고 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참석한 김은아 자매의 결심인 각오도 들린다. "늘 가족에 대한 기도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런 기도모임이 있다고 해서 계속 미루다가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불신 가족을 위한 기도를 첫번째로 꼭 읽고 있는 많은 이들의 식구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매주 월요일 4시 30분 교육관 5층 507호실에서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아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십시오. (이수경 자매)



독실한 불교신자 어머니의 간권에 못겨져 잠시 떠났으나

예수 사랑 없이는 못살겠다며 돌아서서 ...

이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응답의 열매 또한 풍성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와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문 경 숙(집사, 14교구)

새해를 맞이하며 후회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문득 지난 날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다. 1994년 2월 9일, 내가 태어난 지 47년 동안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나에게 제2의 탄생, 다시 말해 새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이다. 출산한 때 외에는 병원에 간 일이 별로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아주 초기에 발견하게 하시고 수술받게 하시고 치료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술받기 10개월 전쯤부터 위액 이상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4-5개월이 지난후, 신장질환이 악도 먹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라는 의사에 의해 내시경 검사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었다. 다른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무서워서 안하려고 하는데 정하고 싶다면 한번 해보라고 무심코 던지듯이 말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된 것이다.

검사에 들어가고 결과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남편과 나는 새벽기도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 함께 기도해 준 남편이 무척 고마웠다. 그래서 인지기 두려운 만한 검사 결과에도 편안했고, 입원, 수술, 치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술 후 4년 5개월째 지나면서 너무 감사한 것 뿐이다. 늘 기도하며 보살피 주시는 부모님, 형제, 믿음의 식구들과 약한 내세를 위해 배려하며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해 주고 싶어하는 남편과 건장한 몸매가 아니라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이해하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딸과 아들,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전에는 없는 것에 불만과 욕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인데,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이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세상 어떤 것도 어찌 소중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데, 건강을 통해서 감사와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화교실 안내

현재 에바다부는 학생부(57명), 성인반(96명), 유아반(116명, 부모가 놓아인 경우의 정장 아동을 대상으로 함)으로 나누어 지어 있는데 학생부 중, 중, 고등부로, 성인반은 청년반과 장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바किन 강도사와 진흥을 장로로 주축으로 한 90분의 교사가 열정을 바쳐 봉사하고 있다. 이들은 주일 3부예배와 찬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예배를 수화동역 및 자막예배로 드린다. 이 예배를 위해 수화동역자(박부미 권사, 안석준 선생 등)가 봉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매주 지체통역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막방송요원 3명이 컴퓨터 타자로 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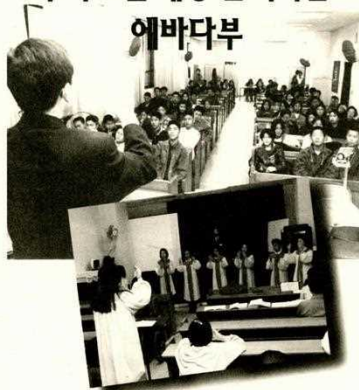
에바다부의 교육목표는 바른 신앙관의 확립과 신앙과 행함의 일치, 그리고 영적 성장이다. 또 에바다부에서는 설립 11주년을 맞이하여 학생부, 성인반 배가 성장목표를 세우고 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도활동으로는 문서선교활동을 힘쓰고 학교전도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전도활동을 실시하며 성인노방전도와 새신자 대상 심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저소득의 농아들에게 교회 구제금을 알선하며 우수학생은 전국 일꾼 양성 센터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5, 26일 양일간은 교육관에서 마태복 5, 6, 7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본받자' 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실시한다. 이때 처음으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권유하며 준비에 여념이 없다.

에바다부 교사들은 농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다. 아직 수화가 익숙지 않은 교사는 농아들과의 의사 교환 통로인 수화를 배우느라

수화교실 개강 준비하는

에바다부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화교실 개방하여
농아인 선교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

열심이다. 또 교사들은 학생들 중에 교회 에바다부 안에서 성장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사람을 볼 때 마치 내 친자로서의 일같은 특별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에바다부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큰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수화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기관에서 개설하는 수화교실은 다수 있으나 교회에서 개설하는 수화교실은 충청남도 에바다부 6개 장역사가 있고 내용이 충실하다고 한다. 올해도 2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기초과정, 초급, 중급, 고급, 통역반 과정으로 수화교실을 연다. 특히 98년부터는 수화인구의 지면확대로 수화동역자 양성을 위해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 등에 공문을 보내어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수화교실을 개방한다. 금년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의 참여도를 높여 전도에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다. 수화교실에는 일부 농아부 개설을 준비하는 타교의 교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아선교에도 도움을 주리라고 믿는다.

에바다부에서는 수화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 외에도 농아들의 삶의 질의 문제를 두고 늘 기도하고 있다. 교사들은 특히 취업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입주가 말한다. 농아들은 우리끼리 지체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이 일이 마치 에바다부 교사들만의 일인양 무관심하였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쏟을 때이다. (권영희 기자)

지체들 소식

영아부

모두 나와 구약성경 공부해요!

제2회 영아부 겨울성경학교가 2월 25-26일 이틀간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영아부실(신교관103호)에서 열립니다. 이에 1997년3월 31일 이후 출생한 아기 및 딸, 아바들을 초대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아기의 예쁘고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출현 교회의 속에 있는 영아들은 다 참여하여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체험하기 바랍시다. (송혜경 통신문)

유아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성경학교

유아부는 2월 25일, 26일 '예수님과 함께' 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를 갖습니다.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 찬양, 성경 이야기와 동극, 선물, 남남 간식, 구명선 전도사님의 학부모 특강 등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기쁨이 넘치는 값진 시간들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로 지라게 해 주세요. 유아부 친구들과 주위에 있는 만 3-4살 어린이들을 보내 주세요. (임미순 통신문)

유년부

'지금도 심방중'

유년부에서는 금년 1, 2월 '전체학생 심방의 날'로 정한 후 현재 학생심방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정방문을 통하여 각 학생의 신앙상태나 생활환경, 부모님의 관심도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여 학생지도의 밑거름으로 삼으려 보다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과정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방 후 학생과의 친밀도와 유대감이 고조될 것이며, 교사에 대한 어린이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심방하는 선생님들이 모두 경험하시는 일이다. 그런 은밀한 기쁨을 알기에 유년부 교사들은 오늘도 매서운 겨울바람을 마

다않고 묵묵히 학생들의 집 약도를 손에 쥐고 집을 찾아 나선다. (윤숙희 통신문)

중등1부

학부모초청예배

2월 28일(다음주)에는 학부모초청예배를 드린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간 정성껏 예배를 드리며, 성경공부시간에는 어떻게 말씀을 배우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9시에 시작되는 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대강당학교 교강으로 계시는 김단용 장로님의 특강이 있으며, 또 담임선생님과 부모님들과 면담시간도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교육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효과적인 신앙교육이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희 통신문)

학부모초청예배

일시: 2월 28일 오전 9시

장소: 교육관 414호

강사: 김단용 장로, 연현일 강도사

중등2부

기대하시라, 수련회

중등2부에서는 겨울수련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수련회 준비팀의 총사령관 김갑식 선생님은 '기대하시라 수련회!'를 외치며 보안상 미리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중등2부 가족을 감격 놀라게 하겠다고 기업을 통한다. 우리 중등2부 가족들은 믿을 만한 수련회 준비감독에게 배수를 보내며 '개방박두 수련회'에 큰 기대를 둔다. (송순옥 통신문)

중등3부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22일)부터 3일간 출현기도원에서 29회 겨울수련회가 열립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빌 1:12)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귀상한 목사님과 이승수 목사님을 강사로 은혜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교사들은 특별기도회로, 또 학생들은 면회회, 기잔단, 새이성, 찬양대 등 소그룹을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송미경 통신문)

고등부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수련회

2월 24일(수)-26일(금)에 출현기도원에서 겨울수련회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회복하고 고등부가 부흥 발전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독교인의 장래 책임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련회 둘째날 저녁부흥회때에는 고등부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함께 참석하여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며 자녀들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학부모님들은 꼭 참석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희 통신문)

학부모초청기도회

일시: 2월 25일(목) 저녁 7시-10시

장소: 출현기도원

교통편: 2월 25일(목) 저녁 6시에

본당 앞마당에서 버스 출발.

청년2부

사랑하며 섬기는 청년으로 거듭나기

청년2부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간 '사랑하며 섬기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아래 진행할, 강점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출현기도원에서 겨울수

련회를 갖는다. 장자 교회의 추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출현의 30대가 모두 모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백영자 통신문)

14교구

지역일꾼 모임 가저

우리 교구에서는 지난주 11일 만나소에서 지역일꾼 모임을 가졌다.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철준 목사님의 '믿음의 진보'라는 말씀에 이어 기도한 후 음식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훈련의 시간을 가졌다. 음용과 찬양, 게임을 했는데 큰 일하기만 하였던 장로님들의 또 다른 모습, 보통때에는 볼 수 없었던 코믹하고 재미있는 서로서로의 모습을 말장난과 마음속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놀이감에 대한 선물까지도 한미음을 받들며 돌아갔다. 주님께 잘 맡겨 주신 일꾼의 역할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 잘 감당하여 훗날 주님께서 주시는 더 귀한 상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애나 통신문)

15교구

남성도들의 참여도 날로 늘다

설 연휴가 돌아 있는 동안이면 교구 모임 장소에는 발을 들일 틈이 없도록 많이 모였다. 지체와 가운뎃부, 특히 남성도님들의 숫자가 늘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매우 참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가 모이기에 있는 설 연휴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만남과 나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위한 예배제식이 <주간찬양>에 실려 있어인지 여러 부를 지체한 분들이 눈에 띄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공과부품 외에 설 연휴에 짝 많은 가정을 위한, 믿지 않는 형제 가정을 위한, 만남을 위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지체로운 행동지침을 말씀해 주셨다. (한숙정 통신문)

